

# 페미니즘의 이론적 기초

임 미 원\*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 본 론

III. 결론을 대신하여

## I. 들어가는 말 - 페미니즘의 사회사적 기초

문화의 페미니즘화(Feminisierung der Kultur)라는 시대진단이 그리 낯설지 않은 오늘날, 세분화되지 않은 보편-추상적 범주로서 ‘여성 일반’을 문제삼고 해명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문화적 주류로까지 격상된 여성의 문제를 결코 자기고백적이거나 자기독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객관화시켜 설명해내기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근대 이후 인간의 주체화를 가능케 한 조건인 동시에 이 주체성을 다시 분열시켜 자기파괴적인 것이 되게끔 한 시대적 조건들을 가늠해 본다면, 무엇보다 사회적 분화(Differenzierung), 시장의 법칙(Marktgesetz), 그리고 이데올로기(Ideologie)라는 세 요소를 들 수 있다.<sup>1)</sup> 이런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1) P. V. Zima, *Theorie des Subjekts. Subjektivität und Identität zwischen Moderne und Postmoderne*

시대적-사회적 원리들은 근대 이래로 작용해온 인간의 조건인 동시에 여성의 조건이기도 하겠지만, 근대적 주체성의 새로운 형성, 위기 그리고 몰락에까지 작동하는 이 원리들이 벗어난 역설과 사회적 모순들은 여성문제의 이중성 내지 중첩성보다는 그것의 이차성 내지 부차성을, 즉 보편적 주체로서의 인간 ‘아래에, 그 이후에’ 주변적으로 존재하는 특수한 문제로서의 여성이라는 위계구조를 고착시킨 면이 있다.

인간 주체의 원자화-도구화-이데올로기 종속화, 그와 더불어 여성의 주변화까지 포함하는 이런 근대적 주체성의 위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 방식의 이해 및 해결의 시도가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상실된 주체성의 회복, 즉 비판적 이성으로써 보편적인 지식-권력의 체계와 담론 속으로 파고드는 자의의식화 내지 주체화의 방식,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권력적-탈보편적인 자세로 이런 지식-권력의 체계와 담론구조 자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탈주체화 내지 주체성의 해체라는 방식이다. 이는 적어도 근대 이후 규범적-실천적 최고선(最高善)으로 승인되어온 보편주의적 자율성의 원리 대(對) ‘미리’ ‘단 한 번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 결정일 것을 요구하는 과잉 보편과 자율에 맞서는 다원주의적 결정불가능성(Unentscheidbarkeit)의 전략 간의 대립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2)</sup> 주체형성의 원리를 둘러싼 이런 대립은 특히 ‘여성 주체화’의 의미와 그 가능성에 관한 페미니즘 논쟁에서 보다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갈등으로 표출된 바 있다.<sup>3)</sup>

무엇보다 지난 세대 이래의 페미니즘 논쟁사는 각 시대의 문제의식 하에서 여성문제가 결코 완벽하게 해결된 적 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그러나 또한 늘 새로운 형태로 제기되어왔음을 보여준다. 1960년대의 페미니즘 이론이 가사노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직업-영리노동이 아닌 여성의 비영리적 가사노동 형태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사회적 노동 개념의 확대를 꾀했다면, 70년대에는 가해자-피해자 및 공범성에 관한 논쟁을 통해 가부장주의적 지배구조의 유지에 여성이 어떻게 연루되고 이용되는지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sup>4)</sup> 여성의 사회적 ‘미편입’의 문제로부터 ‘왜곡된 편입’의 문제로 관심방향이 옮겨갔다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80년대에는 양성(양성)의 ‘평등(Gleichheit)’ 이외에 ‘차이(Differenz)’의 관점이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정책적 딜레마가, 그리고 90년대에는 보다 세분화된 관점에서 육체적 성(sex)-사회적 성(gender)의 구별 및 여성 내부의 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의 문제까지 테마화 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면 60-70년대의 페미니즘은 양성관계를 지배하는 사회적 노동 및 사회적 규율의 체계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사회적-주변적 가치로 평가절하되고 격리되어 왔던 ‘여성=

(München, 2000), 295-297면.

2) P. V. Zima, 위의 책, 288면.

3) R. Becker-Schmidt, “Feministische Debatten zur Subjektconstitution”, in: R. Becker-Schmidt/ G.-A. Knapp, *Feministische Theorien*(Hamburg, 2003), 124-142면; P.V. Zima, 위의 책, IX-XIV, 276-293면.

4) R. Becker-Schmidt/ G.-A. Knapp, *Feministische Theorien*(Hamburg, 2003), 8면.

사적 영역'을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 반면, 80년대를 지나면서는 양성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확인하고 여성성의 범주 및 가치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정책적으로 주변화-차별화된 성별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사회 비판이론적 접근이 정체체성 및 양성 차이의 고유함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으로 확대 내지 극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관점에 비추어 보면, 근대의 공적영역/사적영역의 분리 이후 사적 영역으로 격리되어온 여성 가사노동의 경우, 한편으로는 은폐된 사회적-경제적 억압의 한 극단으로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사회적-공적 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양성 간의 고유한 차이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자의식의 극치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60-70년대의 페미니즘이 정치적-경제적-성적 위계질서의 재생산 구조 속에서 여성을 열등성 내지 결합과 동일시하는 주류(主流)의 질서에 맞서 '우리도 있음' 내지 '우리도 편입될 만함'의 정서에 기울었다면, 80년대 이후에는 '왜 이 기준인가'라는 문제제기 하에 오히려 '우리는 다르며 그런 차이의 징표가 비주류적인 열등성의 상징일 이유는 없음'을 의식하는 쪽에 가까웠다. 90년대의 해체적 관점의 경우, 본능적으로 인간을 양분화시키는 남/여라는 성(性)정체성이 자연적인 것, 이미 불가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론화 또는 의미화를 거쳐 비로소 형성된 것, 즉 남녀로 구별되는 정체체성이 경험적으로 확인되든 않든, 그리고 한쪽의 정체성이 다른 쪽을 지배하든 않든 상관없이, 정체체성이라는 담론과 그에 대한 의식 자체가 곧 억압이라고 보는 쪽에 가깝다. 모든 자연적인 것, 주어진 것(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인간 존재를 양성적 기준에 따라 범주화시켜 구별하고 그 범주들 간의 공통점 혹은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또는 부인)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과 그에 대한 자의식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성성(兩性性) 담론 내지 양성(兩性) 이데올로기에의 감염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분석으로부터 귀결되는 비는 역설적이게도 '페미니즘의 종말' 내지는 페미니즘의 자기해체일 것이다.<sup>5)</sup>

## II. 본 론

### 1. 페미니즘의 이론사: 구조주의와 해체주의의 관점

5) 그리고 이런 해체의 관점에서 보면, 근현대의 법제도 내지 법담론 역시 그것이 구조적-구체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얼마나 보호하고 개선시키는가와는 무관하게 양성(兩性) 구조 및 양성성(兩性性) 담론의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정되어온 페미니즘의 문제사를 검토해보면, 페미니즘 이론 자체의 역사성이 확인된다. 근대초기부터 길게는 20세기 중반까지의 여성연구에서는, 성(性)이라는 범주를 자연적-생물학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양성 간의 차이를 이미 늘 존재해온 자연적 본성의 차이로 고착시키는 반(反)페미니즘적 인간학이 지배적이었다. 1960-70년대에 이르러서도 이 시기의 사회과학적 관심은 오히려 계급-계층 고유의 사회화문제로 집중되어, 성(性)정체성을 매개로 한 양성 고유의 사회화 방식을 비판적으로 추적하기보다는 여성에게 귀속되는 이차적 덕성-이차적 사회화-이차적 역할의 구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소 단순화시켜 보면, 여성은 마치 프롤레타리아의 또 다른 아류 내지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약자군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서 페미니즘이 직면하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정체성에 기초한 자의식 내지 주체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사회화 내지 주체화への 요구는 그 이면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위계구조를 환기시키고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초기단계의 여성연구가 무엇보다 '성'이라는 범주에 대해, 고유한 성적 본성-성 특유의 행동양식-성역할 및 성별 분업으로 이어지는 자연주의-생물학주의적 역할이론의 맥락에서 최종적으로 할당되는 역할의 준거점, 또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성별화 작업에서의 분류의 준거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면, 보다 사회학화-구조주의화된 70-80년대 이후의 양성연구에서는, 상호관련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요소들의 연쇄 속에서 양성구별을 통해 성적 위계질서가 재생산되고 사회구조화되는 맥락, 따라서 '사회구조로서의 성'이라는 관점이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의 사회적-구조적 관련성 차원으로 문제의식이 확대되면서 초기 여성연구의 한계 -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징표에서 출발해 그 생물학적 군이 어떻게 그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존재해(고립 혹은 편입되어) 왔는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 를 극복한 면이 있지만, 지나친 사회학주의에서 오는 페미니즘의 사회학 종속성이라는 문제도 없지 않다. 여성문제가 '이미 늘' 상호관련적인 사회체계와 구조들의 문제로 환원되어 제기될 때, 사실상 사회학의 시각으로 분석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남아있어 페미니즘의 독자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이다.

사회이론적-구조주의(Strukturalismus)적 관점에서 여성문제에 접근하는 경우, 무엇보다 관계(Relationalität)개념을 매개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 양성 간의 관계가 형태화되는지, 그리고 양성관계는 어떻게 다른 사회부문들과 연결되는지가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sup>6)</sup> 요약하자

6) R. Becker-Schmidt, "Frauenforschung, Geschlechterforschung, Geschlechterverhältnisforschung", in: *Feministische Theorien*(Hamburg, 2003), 39-41, 47-50면;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in: D. M. Borchert(Hg.), *Encyclopedia of Philosophy*(2.Ed., Thomson Gale, 2006), 273-279면.

면, 양성관계는 지배-권력관계에 종속적인 사회관계로 편제되며, (양성관계까지 포함하는) 이 사회관계들은 서로 분리되거나 연결되는 다양한 결합을 통해 구조화되어간다. 남녀 양성관계의 경우 한편으로는 중립적이거나 독자적인 (것으로 보이는) 코드들을 이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중심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논리들을 통해 결국 양성 간의 응축된 위계질서의 체계가 굳어지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 작동하는 여러 부문들 상호간의 관계에 상응하여 양성질서가 규정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양성관계가 사회적인 관계에 압도되는 과정,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지배-권력의 위계구조와 성별 위계구조가 공존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70-80년대 사회이론 지향적 페미니즘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양성질서에 대해 거시적-구조주의적-비판이론적으로 접근했던 70-80년대의 이런 페미니즘은 그러나 독자적 문제의식을 키우고 주류 사회이론으로서의 비판이론까지 극복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80년대 후반에는 양성차이가 낳는 사회적 연쇄‘작용’과 그 구조적 ‘결과’들을 추적하는 대신, 오히려 양성차이의 ‘전제’들 및 문화적 ‘표현’의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양성의 구별 및 위계화는 지배-권력 질서의 구조화에 매개가 되며 ‘모든 성적인 것, 사적인 것은 결국 사회적, 정치적인 것’이라고 보는 70-80년대의 구조비판의 관점보다는 한결 미시적이고 탈권력적인 관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주의적 분석이 타 부문과의 관계규정의 문제, 즉 양성구별에서 시작되어 성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으로 전이되고 고착되는 방식, 그리고 성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을 반영하며 그에 종속케 되는 방식 등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80년대 후반의 해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성적인 것의 사회심리적 기초 내지 전제, 남성-여성 귀속성 내지 정체성이 형성되는 맥락, 그 양성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되는 방식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구조주의적 분석이 양성구별 또는 성차(性差)가 무엇을 낳는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관되고 무엇으로 이어지는가의 관점이라면, 해체주의적 분석은 무엇이 양성성(성차)을 낳고 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의 관점에 가깝다. 즉, 양성성에 관한 사유를 분해, 성에 관한 규범적 언명들로부터 양성(兩性)적-이성(異性)적인 성정체성이 형성되는 맥락을 분석하며, 양성성, 여성성이라는 성적 관념을 환기시키고 연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임을 지적한다. 이런 해체적 관점에서는 ‘적은 오히려,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진술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육체적 성(sex)-사회적 성(gender)의 관계 문제이다. 이는 도처에 작동하는 젠더논의의 본질은 육체적 성(sex)이 이미 사회적 의미를 싣고 구조화된 바로서의 젠더로 정착되는 데에 있음을 의식한 90년대 페미니즘의 산물이다. 성(性)에 대한 이런 의식으로써 보면, 여성(문제)의 적은 실체로서의 남성이라기보다는 ‘답론구

조로서의 젠더' 내지 '양성성 담론'이며, 그런 점에서는 자기해체적이게도 페미니즘의 위기로 귀결될 수가 있다. 80년대에 '우리는 여성이다'라는 표현이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 딸, 또는 아내이다'라는 사회적 역할규정을 최종적으로 극복한 집단적 자의식의 표현일 수 있었던 반면, 해체주의적이며 포스트모던적인 시대조건 하에서 '우리는 여성이다'라는 표현은 양성성 담론에 감염된, 세분화되지 않은 왜곡된 성정체성의 표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남성에 대한 구조적 대척점으로서의 여성이라는 동질감보다 '같은 여성이지만 다름', 양성성으로부터의 이탈과 비정상성에의 통찰이 더 중요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학적 양성화(gendering)보다 오히려 성범주(내지 양성차이)의 중립화(degending)를 모색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다. 70-80년대의 양성연구에서 성범주(내지 양성차이)를 자연실체적인 것으로 고착시키는 경향이 성의 '자연주의화', '생물학화' 내지 '존재론화' 등으로 비판되고 성관념의 사회화 내지 역사화가 시도되었다면,<sup>7)</sup> 포스트모던적 해체주의의 시대에는 사회적 성(사회적으로 의미 부여되고 인위적인 양성질서로 고착된 성)관념에서 벗어나는 중립화(degending)로의 방향 전환이 오히려 긍정되고 선호될 수 있는 것이다. 중립화된 성은 사회화된 성으로서의 젠더와는 달리 과잉의 자의식에 시달리지 않으며, 강요된 양성구조와는 달리 그 의미구조가 다양할 수 있고, 지배적인 성담론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지 않은, 유연하고 비정치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페미니즘의 문제는 무엇보다 양성차이의 본질, 그리고 성정체성 내지 양성구별에 있어서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관계 등으로 집중된다.

## 2. 페미니즘의 난제들: 성정체성 논쟁 - 성의 사회화, 성의 중립화?

이미 언급했듯이, 가치의 다원주의화 못지않게 문화의 페미니즘화가 두드러지는 시대에 '사회과학적-역사적 관심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문제설정에는 그만큼 많은 의문과 전제들이 수반된다. 우선 생물학적 징표에 기초한 양성구별이 왜 사회과학적인 사유의 출발점이 되며, 성별 간의 상이함 못지않게 동일 성별집단 내에서의 세분화된 편차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여성'이라는 범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내용을 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점차 확인해져가는 여성들의 사회관계 상의 다양성 및 이질성에 비추어볼 때, 결국 '여성'들의 공통점으로는 사회적-문화적인 의미가 아닌 자연적-생물학적인 의미로서의 '여성성(女性性)'만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달리 표현하면, 합리화-문명화-다원화된 시대에 성(性)이라는 범주는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가라는 문제

7) R. Becker-Schmidt, 위의 글, 29면.

이기도 하다. 물론 실존적인 차원에서 성의 회피불가능성(Unhintergebarkeit von Geschlecht), 즉 인간의 의식 및 의지로 부정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인간(관계)의 성적 징표성이 늘, 여전히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지만, 성적인 차이 혹은 성적인 관계가 갖는 의미의 맥락이 변화되어가는 오늘날, 애초에 생물학적 기원을 내포한 ‘성’이라는 범주는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가 혹은 성이라는 문제범주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세분화된 성별화(gendering) 과정을 거쳐 재해석되고 재적용됨으로써 오히려 그 전방위적 현존성을 확인받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설명키 어려운 난제일 것이다.

이런 난제들 위에서 여성 또는 양성을 사회과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히 90년대의 육체적 성-사회적 성 논쟁(Sex-Gender-Debatte) 내지 성(性)정체성 논쟁이다.<sup>8)</sup> 이 논쟁은 생물학적으로 할당된 성의 ‘회피불가능성’ 내지 ‘주어진 사실’로서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자의식, 그리고 특정 생물학적 성에의 귀속성 내지 동일성만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성적 정체성은 완성되지도, 유지되지도 않는다는 각성이 동시에 공존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정체성과 관련해 한편으로는 ‘여성 아닌’ 존재와의 구별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실체적 본질과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시도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 움직임도 나타나게 된다.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타자를 빌어 확인되는 성적 자기 정체성이란, 양성 간의 이질성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내지 실체화) 및 여성들 내에서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치 않는 지나친 동질화를 두 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한편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것’ 내지 그에 대한 관념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에 의존한다고도 할 수 있다.<sup>9)</sup>

이렇게 다층적으로 얽혀있는 성정체성의 본질과 관련하여 성논쟁의 초기에는, 어떻게 남녀 양성의 생물학적인 성차(性差)로부터 남성성-여성성이 규범화 내지 구조화되는가의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70년대 여성연구에서 이미 다루어진 성정체성의 핵심명제는, 인성-행동에 관한 규범의 내재화라는 관점에서 남성성-여성성의 형성은 생물학적 차원을 벗어난 사회-문화-역사적인 연관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자아정체성의 형성 과정이나 사회화의 과정조차 성적 정체성 및 성역할에 대한 암시, 강요이자 착취라고 할 수 있다.

성적 정체성이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됨으로써, 자연의 영역에

8) G.-A. Knapp, “Konstruktion und Dekonstruktion von Geschlecht”, in: *Feministische Theorien*(Hamburg, 2003), 65-73면.

9) 이렇게 인간의 성(性)의 이원화, 더 넓게는 인간존재의 이원화라는 방식을 통해 획득되는 성적 정체성은, 결국 ‘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라는, 나의 확실성을 의문시하는 자기의식 및 자기정체성의 문제 앞에서 근대적 자아가 취했던 방식, 즉 주체-객체 또는 존재-의식의 이원화의 방식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간혀있었던 성이라는 테마는 자연적-물리적인 본성으로서의 성(sex) 대(對) 사회화-역사화된 성(gender)으로 이원화될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확고해진 성의 사회화 내지 역사화의 이면으로 종래의 지배적 관념이었던 자연적-육체적인 성(sex)의 의미가 축소되고 부인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자연의 영역 내에 고정되어 인간에 의해 형성-변화-개선가능한 것들의 영역으로부터는 격리, 배제되었던 양성질서 내지 성적 관계가 사회적-정치적 메카니즘 속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성’이라는 범주를 매개로 한 인간이해 및 규범비판까지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sup>10)</sup>

이 논쟁과 관련된 비판적 견해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보면, 육체적 성-사회적 성으로의 구별에 대한 사회구성주의(Sozialkonstruktivismus)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해체주의(Dekonstruktivismus)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두드러진다. 사회구성주의적 비판은,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은 본래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자연적-생물학적 양성성 내지 성차(性差)는 사회문화적으로 편제된 성적 위계질서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성차를 위계질서화하는 해석의 표준들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거나 상호행위론적으로 분석해낸다.<sup>11)</sup> 이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핵심문제는, 기본적으로 육체적 양성성이 어떻게 (자연적인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인 분류이자 배타적인 위계질서로 구조화되었는가, 성, 성차 및 성적 관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재생산되는가, 차이, 구별, 위계의 이원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양성의 정체성을 구성할 것인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자연주의적-생물학적인 양성성이 사회의 위계구조 속에서 부여받는 위치와 의미를 파악하고 양성성 자체를 비판적으로 재사회화시키려는 것이다. ‘성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성이라는 코드를 통해 사회를 파악하기보다는 성이라는 코드 자체의 구성과정을 파악하려는 관심에 기울어있다. 이 때의 성은 이미 늘 개별 인격체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인격체의 객관적-실체적 징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문화적 과정 내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확인되는 상황관련적-상호관련적인 구성물에 가깝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이런 성관념, 즉 성적 정체성 내지 성차가 확인되고 고착되고 위계화되는 과정적-상호행위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doing gender’의 관념이다.<sup>12)</sup> 이 관념은, 양성성 내지 성정체성의 문제에 비판적으로 접근,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에 유용한 매개가 된다. 무엇보다 생물학적-자연적 양성성에 기초한, 위계화된 양성구조를 평가함에 있어서, 양성성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의 위계화를 비판하는 견해, 또는 양성성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양성 차이는 중립적인 것이므로 양성질서의 재정식화 내지 탈위계화를 통한

10) G.-A. Knapp, 위의 글, 70-71면.

11) “constructivism”, in: L. C. Becker/ C. B. Becker(Hg.), *Encyclopedia of ethics*(2.Ed., vol.1, Routledge), 317-320면; G.-A. Knapp, 위의 글, 71면.

12) G.-A. Knapp, 위의 글, 75-78면.

재구성이 가능한가 또는 구조화된 성(양성성) 자체가 차이와 위계를 만들어내므로 양성성 자체의 파괴까지 가야하는가의 문제이며, 결국은 양성성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 의문, 즉 양성성은 ‘성(성차)없는 사회’라는 정치적 유토피아로만 극복가능한, 마치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선형(Apriori)에 가까운가, 혹은 과정적-선택적-비교적인 관점에서 재구성 및 교정이 가능한 경험 연관적 속성의 차원인가의 의문으로 돌아간다.<sup>13)</sup> 특히 양성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양성 체계의 견고함과 전능함에 대한 회의로 인해, 극단적으로 인위적 구성-구조가 위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이, 즉 남녀로 확인되는 양성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차이와 위계를 만든다는 관념으로 기울게 되는 역설, 즉 ‘doing gender’의 위력 앞에서 극단적으로 성차의 중립화(degendering)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포스트모던적 해체주의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해체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양성질서란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을 동성(同性) 아닌 이성(異性)적 질서로 규범화시키는 문화적 코드와 연관되어 있다.<sup>14)</sup>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동일화-보편화의 방식을 통해 형성된 ‘정상적인’ 것들을 해체시키고 정상(正常)-주류(主流)-동류(同類)의 계열에 흡수되지 않을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 이를 위해 문화적인 정상성 내지 보편성에 대해 인식비판적-언어비판적인 분석을 가하게 되고, 자연적-본성적 차이의 이름으로 위계질서를 구조화시키는 지배-권력의 메카니즘을 직접 문제삼기보다는 이성성(異性性)=문화적 정상성(正常性)으로 보편화-코드화시키는 지식-언어-담론 체계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삼는다. 성차와 양성관계가 구성, 표현, 실행되는 지식-언어-담론적인 형태와 절차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전체사회질서 체계 내에 왜곡된 방식으로 편제되고 이용되는 부분질서(양성질서) 자체를 관심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부터, ‘양성차별’ 이전에 ‘양성 구별’의 가능조건, 즉 남녀로 확인되는 성정체성과 그에 대해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의식, 진술케 하는, ‘성’이라는 범주 자체의 언어적-담론적 가능조건을 문제삼는 방식으로서의 관심방향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해체주의의 관점을 대표하는 버틀러의 분석에 따르면, 성차란 ‘생물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관계에 관한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하)는 장소이면서 그럼에도 그 물음이 결코 대답될 수 없는 장소’이다.<sup>15)</sup> 또한 한계적-경계적 개념이면서 그 경계는 유동적이며, 그 의미내용에 있어서도 심리적-신체적-사회적인 다차원성을 지닌다.<sup>16)</sup> 그만큼 고정적인 징표나 상태에 달린 것도 아니고, 상상적인 것만도 아니면서, 그저 늘 새롭게 언어로써 표현될 것을 요구할 뿐이다. 이로부터 버틀러의 성(性) 내지 성차(性差)는 인간의 의식, 체험, 제도를 포괄

13) G.-A. Knapp, 위의 글, 80면.

14) P. V. Zima, 위의 책, 276-293면; J. Butler, *Das Unbehagen der Geschlechter*(Frankfurt, 1991), 15-62면.

15) G.-A. Knapp, 위의 글, 82면.

16) J. Butler, 위의 책, 25-37면.

하는 모든 것의 총체이면서 또 어떤 총체성으로도 완벽히 환원되지는 않는, 규정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육체적 성과 사회적 성 범주의 명확한 구별은, 양성성의 사회구조적 틀과 내적 안정성을 암시함으로써 오히려 이원적 성별화 - 위계적 양성질서로 이어지는 - 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비판과 담론의 장으로부터 미리 면제되게끔 한다.<sup>17)</sup>

버틀리의 본질적인 관심은 남성/여성이라는 양성분류와 양성차별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성(지향)성(異性性)=성적 정상성/ 동성(지향)성(同性性)=성적 비정상성이라는 성정체성의 분류와 비정상성에 대한 성적-인격적 비승인의 문제에도 향해있다.<sup>18)</sup> 성정체성의 규정과 승인에 있어 ‘누가 타자인가’에 관한 사유의 전환 - 여성으로부터 동성애자로의 - 인 셈이다. 그리고 이런 성정체성의 형성과 승인은 육체적 진실(내지 육체적 현실)의 몫이 아니라, 언어와 담론의 몫이다. 즉, 실제적인 성정체성을 기초로 하여 그에 대한 언명이 등장하고 승인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성에 관한 규범적 언명들이 있고, 이 언명들을 통해 수행적으로(performativ) 성정체성이 구성된다는 것이다.<sup>19)</sup> 성정체성이란 자연적-본성적 양성성에 대한 사후적인 확인-승인이기보다는, 지배적 성관념에 대한 수행적 언명들을 거쳐나온, 그것을 통해 비로소 걸러지고 만들어지는 성적(性的) 규범의 침전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을 (혹은 대안이라고) 생각키 어려울 만큼 해체주의적 비판은 근본적이다. 물론 근대적 ‘보편성’과 ‘주체성’에 기초한 규범적 (위계성의) 과잉을 비판하며 언어와 담론의 구조로 되돌아가 양성성의 문제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언어적 관념론(linguistic idealism)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sup>20)</sup> 또한 양성적 사회-양성적 역사를 건너뛰고 마치 ‘제3의 성’을 제시할 수 있을 듯이 여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양성(兩性)의 사회성 내지 실체성을 애초에 생략해버리는 것과 같다.

### Ⅲ. 결론을 대신하여

무엇보다 양성간 위계질서의 담당자로서의 ‘지배-권력-남성’이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성정체성의 생산자로서의 ‘지식-언어-담론’으로의 문제의식의 전환은 페미니즘의 진화인 동시에 페

17) G.-A. Knapp, 위의 글, 84면.

18) J. Butler, 위의 책, 63-122면; G.-A. Knapp, 위의 글, 86면.

19) J. Butler, 위의 책, 198-208면; P. V. Zima, 위의 책, 279면; G.-A. Knapp, 위의 글, 88면.

20) G.-A. Knapp, 위의 글, 89-90면. 더 나아가 버틀리는 ‘정치로서의 패러디’(‘Parodie als Politik’)라는 관념을 구상한다.

미니즘의 위기를 암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양면성 내지 자기모순을 재해석하고 극복하는 것이 '해체주의 이후'의 페미니즘 '이론'의 자기과제일 것이다.

또한 페미니즘적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여성의 문제, 양성의 문제는 어떻게 '같음'과 '다름'을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원리 하에, 인간들 간의 차이 내지 불평등의 조건 중 하나로서 '자연적으로 할당된 성(sex)'을 문제삼고 교정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의 뭉치라면, 이 '같음'과 '다름'의 경계와 조건, 그 의미내용을 확인하고 채움으로써 '탈해체적 젠더(gender)'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페미니즘의 '실천적' 과제일 것이고, 이런 페미니즘의 이론적-실천적 기초 위에서 비로소 법의 문제, 즉 사회적-문화적 범주로서 '여성'을 둘러싼 규범적 갈등의 어느 지점에 법이 개입할 수 있고, 또 어디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게재확정일자 : 2007. 8. 20.)

주제어 : 여성연구, 양성연구, 페미니즘, 구조주의, 해체주의

< 참고문헌 >

- Becker-Schmidt, R., Frauenforschung, Geschlechterforschung, Geschlechterverhältnisforschung, in: R. Becker-Schmidt/ G.-A. Knapp, Feministische Theorien, Hamburg, 2003.
- , Feministische Debatten zur Subjektconstitution, in: R. Becker-Schmidt/ G.-A. Knapp, Feministische Theorien, Hamburg, 2003.
- Beer, U., Geschlecht, Struktur, Geschichte. Soziale Konstituierung des Geschlechterverhältnisses, Frankfurt, 1990.
- Benhabib, S., Kulturelle Vielfalt und demokratische Gleichheit, Frankfurt, 1999.
- Butler, J., Das Unbehagen der Geschlechter, Frankfurt, 1991.
- Haraway, D., Die Neuerfindung der Natur, Frankfurt, 1995.
- Knapp, G.-A., Konstruktion und Dekonstruktion von Geschlecht, in: R. Becker-Schmidt/ G.-A. Knapp, Feministische Theorien, Hamburg, 2003.
- , Achsen der Differenz - Strukturen der Ungleichheit, in: R. Becker-Schmidt/ G.-A. Knapp, Feministische Theorien, Hamburg, 2003.
- Naffine, N.(Hg.), Gender and Justice, Ashgate, 2002.
- Reath, A., "constructivism", in: L. C. Becker/ C. B. Becker(Hg.), Encyclopedia of ethics, 2.Ed., vol.1, Routledge.
- Schrift, A. D.,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in: D. M. Borchert(Hg.), Encyclopedia of Philosophy, 2.Ed., Thomson Gale, 2006.
- Young, I. M.,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Oxford, 1990.
- Zima, P. V., Theorie des Subjekts. Subjektivität und Identität zwischen Moderne und Postmoderne, München, 2000.

< Abstract >

## Eine Betrachtung über die theoretische Grundlage des Feminismus

Mi-Won, Lim

Im Zeitalter der Pluralisierung und Feminisierung der Kultur wird das allgemein-abstrakte Thema 'Frauen' immer komplizierter zu behandeln. Die feministische Themengeschichte zeigt schon, dass jedes Zeitalter immer erneut das eigene 'Frauen'problem theoretisiert und in Diskussionen einbringt.

Während die strukturalistische Position in den achtziger Jahren das Geschlecht als die Sozialstruktur kategorisiert hat, hat die dekonstruktivistische Position in den neunziger Jahren das Geschlecht eher als einen immer erneut artikulierten kulturellen Code aufgefasst.

Der Themenübergang von den sozialen Relationen und den Sozialstrukturen als Verwalter der Geschlechterhierarchien zu der Sprache und dem Diskurs als Medium für die Geschlechtsidentitätsbildung kann einerseits für den Fortschritt des Feminismus, aber andererseits für dessen Krise gehalten werden, die zum Ende des Feminismus führen könnte. Insofern wäre die Auflösung dieser Ambivalenz die 'theoretische' Aufgabe des Feminismus im 'post'-dekonstruktivistischen Zeitalter.

Des weiteren geht es der feministischen 'Praxis' vor allem darum, die Kategorien der 'Gleichheit' und 'Differenz' selektiv auf die Wirklichkeit anzuwenden. Dazu muss zunächst der Bedeutungsinhalt der beiden Begriffe geklärt und dadurch der zeitgemässe 'Gender'begriff konstruiert werden.

*Key Words : Frauenforschung, Geschlechterforschung, Feminismus, Strukturalismus, Dekonstruktivismus*